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돌레사 군수에게 구호물품 전달하고 있다. 이 구호물품은 돌레사와 기안 지역 주민 8000가구에 전해졌다.



하늘에서 본 타클로반의 피해 모습.



기안 지역의 피해를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둘러보고 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현지 회생 주민을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아픔, 한국불교 자비로 보듬다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 19~24일 현지 구호활동

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이동하는 거리의 모든 가옥과 시설물들이 태풍으로 인해 모두 파손됐다. 현지인들은 토스트 네 쪽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었고,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lease, help us (우리를 도와 주세요)', 'We need food(식량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피해를 짐작하게 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구성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단장 헤만 스님)은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은 구호지역으로 타클로반시 남쪽 돌레사와 사마르섬 동남쪽에 위치한 기안 지역을 선정했다. 대부분의 개발NGO와 미디어들이 타클로반의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피해지역을 찾아 현지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돌레사는 타클로반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4000가구 1만 7000여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긴급구호봉사단이 찾은 돌레사 내 대부분의 집들은 간신히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태풍에 이어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틈틈이 흙 속에 묻힌 집기들을 챙기고 쓰레기를 치우는 정도였다.

주민 이멜다 노비오(52세) 씨는 "식량과 물이 부족하다.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 곳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슬픔에 봉사대는 주민들의 손을 잡으며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했다.

타클로반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

마르섬 기안지역도 상황은 심각했다. 1만3500가구 4만7087명이 생활하는 기안은 타클로반 못지않게 피해가 컸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망자 101명에 부상자도 3417명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 역시 거리상의 이유로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국경없는의사회, 옥스팜 등 국제적인 규모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듀비트(45세) 씨는 "하이옌으로 모든게 파괴됐다"며 "각국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먼저, 긴급구호봉사단은 돌레사 내 지역 조직인 바랑가이(한국 행정조직 면 개념)를 통해 돈나브리하다, 텔레그라포, 포브라시온 등 총 9곳에 물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구호품은 바랑가이를 통해 돌레사 내 4000가구 1만7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분배됐다. 종일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긴급구호키트에 포함된 품목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물품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대 단장 헤만스님도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물품 전달에 함께 했다. 지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해 일손을 거들었다.

긴급구호봉사단 구호물품은 현지 상황에 맞춰 구성됐다. 긴급구호 단계에서 복구로 접어들고 있어 쌀과 라면, 통조림, 간장과 면수건, 생리대, 양동이 등으로 구호키트가 구성됐다. 또한 대부분의 NGO가 지원한 구호키트들은 3~5일 분량이었지만 조계종의 구호키트들은 10일 분으로서 주민들이 복구 시까지

일시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필요한 물품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구입해 피해지역으로 공수했다.

어윈 오키나 플로사군 군수는 "돌레사를 위해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 불교계에 거듭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봉사단은 돌레사와 마찬가지로 기안에 4000가구를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기안 지역 구호물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입고돼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분배됐다.

신 곤잘레스 기안 군수는 "한국에서 이곳까지 방문

돌레사, 가운데 2억 원 지원

긴급구호·복구위한 물품 전달

국내 NGO 중 가장 먼저 구호 실시

韓불교 구호 역량 확인 '쾌거'

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이 지원한 식량과 구호품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와 NGO의 도움이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 나은 마을 만들기 위해 많은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호 물품은 돌레사와 기안 두 지역 8000가구, 약 3만 4천여 명에게 고루 전달됐으며, 지원 지역을 돌며 지낸 천도재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컸다.

구호 단장 헤만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종단의 발 빠른 대처로 재난 지역에 긴급 구호를 할 수 있었다"면서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구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사라지대로 남아있던 지역을 발굴하고 국내 NGO로는 최초로 긴급구호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기적 대응이 있을 수 있던 점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의 협력과 현지 출신 활동가인 강슬기 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 활동가이자 아버지가 필리핀인인 강 씨는 봉사단에서 현지인 인터뷰와 구호물품 구입 등의 역할을 맡았다.

강 씨는 "사마르섬은 아버지의 고향이고 타클로반은 아버지가 공부했던 곳"이라면서 "아버지의 고향을 도울 수 있어 기쁘면서도 태풍의 활판 자리에서 신음하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슬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호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의 필리핀 긴급구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교적 아이টে임을 가진 구호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과제 역시 남았다.

김도훈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장은 "조계종 긴급구호 능력은 확인했다. 그간 자원은 충분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매뉴얼만 개선한다면 세계 유수의 국제구호 NGO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같은 시기에 들어온 대만 자제공덕회의 경우 단순 지원이 아닌 복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의 복구사업은 현지인들을 인력으로 고용해 임금을 주는 '캐시 포 워크(Cash for Work)' 방식이다. 이는 현지인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현물 경제를 순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불교도 순환적이면서 불교적인 구호 아이টে임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신종일 기자·사진= 공동취재단

"하루 빨리 재해를 극복할 수 있기를"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장 헤만 스님

"구호물품을 지원 받고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단에서 신속하게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봉사대를 파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장 헤만 스님(사진)은 필리핀 구호활동에 대한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필리핀 긴급구호의 방식을 의료지원이나 복구지원이 아닌 물품 지원으로 선택한 것과 관련해 헤만 스님은 "종단의 구호활동이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구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며 "사전 조사를 통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식량과 물, 생필품 등이라는 점에 주목해 물품 지원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의 구호활동이 물품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필리핀 피해 지원을 위해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헤만 스님은 "긴급구호봉사대의 구호활동을 계기로 자신이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불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최고 마애삼존불이 모셔진 천태산 천태사에서 기도하며 영감(靈感)을 받아 제작된 영험한 **지장보살 황금도자기!**

법성스님 330位 지장황금도자기

지장보살 황금도자기란?

손수 빛은 백자에 진사를 입히고 330분의 지장보살님을 순금으로 전사한 황금도자기입니다. 법성스님께서 원효대사께서 창건한 천년고찰 천태산 천태사 무량수궁 마애삼존불에서 기도 중 영감(靈感)을 받아 점안한 도자기입니다. 진우대사님께서 증명한 법기로 가정에 모셔두면 330분의 지장보살님께서 위기에서 구해주고 어려울 때 지혜를 주어 절묘하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영험을 볼 수 있습니다!

- *하는 일 마다 가로막는 느낌과 매사 잘 안 풀리는 경우 동항에 모셔둠
- *자녀들 중에서 혼사가 늦어지는 경우 이름을 적어 넣어 서항에 모셔둠
- *부모형제 자식 중 건강이 잘 좋은 분 이름을 적어 넣어 남항에 모셔둠
- *자녀들 중 갑자기 뼈뚫어진 행동과 성격이 변하는 경우 서항에 모셔둠
- *잘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 지고 집에 우환이 겹치면 북항에 모셔둠
- *취업, 승진시험 등 공부를 하는 집안에는 지장도자기를 서항에 모셔둠
- *부부기간 사이가 않좋은 분은 대주의 이름을 적어 넣어 동항에 모셔둠
- *사찰에 49재, 천도재, 원불, 위패, 납골함을 모신 분은 북항에 모셔둠

보시가 108만원 | 주문전화 055)372-5517

*보시금은 노인복지원 건립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높이 35cm 둘레 80cm